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음 3월 9일) 제203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물 찬 제비의 먹이사냥



전북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23일 오후 어느 천변에서 제비가 먹이사냥을 하고 있다.

올 후계농업경영인 389명

도, 청년창업형 포함... 영농 자금 826억2600만원 지원
개인당 최대 3억원까지 본인 계획따라 2022년까지

전북도는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389명을 선정하고, 영농 창업 자금으로 826억2600만원(융자)을 지원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영농 창업 자금은 개인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며, 농지 구입, 농업용 시설 설치, 축사부지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사용하면 된다. 2018 후계농업경영인은 2017년 12월 ~ 2018년 1월 30일 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아 865명이(청년창업형487명 + 일반378명) 접수했다. 청년창업형은 시군 서류평가, 도 면접평가로 176명을 선정했다. 일반 후계농업경영인은 시군1차 평가와 전문평가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2차 검증평가를 거쳐 213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이 전북 농가수의 18%에 달하고 농업·농촌의 청년 리더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급속한 노령화, 과소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 198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4만 4천명이 선정, 그중 전북은 12.5%인 1만8,000여명이 선정 됐다. /김진성 기자

“北 핵동결 조치... 비핵화 결정”

문 대통령,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 높이는 청신호
정상회담 기간이라도 정쟁 멈춰달라... 초당적 협력 요청”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3일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북한이 핵동결로부터 출발해 완전한 핵폐기의 길로 간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북한의 선행조치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모두발언은 지난 21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직후



처음으로 직접 내놓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중지를 선언했다. 그에 대한 실천적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전 세계가 전향적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좋은 소식으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이웃 국가들도 좋은 평가와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UN 사무총장도 평화로운 비핵화의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나올 앞으로 다가왔다. 군사적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기로에 서있다”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전 세계가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도 정상회담 기간까지 만이라도 정쟁을 멈춰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 핵과 전쟁 걱정이 없는 한반도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면서 “여야가 협력해 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회담에 응하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한국지엠 구조조정 노사 합의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노사의 합의가 이뤄졌다. 23일 한국지엠(GM)은 “2018년도 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돼 부도 위기를 넘겼다”면서 “회사 정상화와 함께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단협의 최대 쟁점은 1000억원의 복리후생비 감축 방안과 680여명의 군산공장 전역 인력 처우 문제, 신차 배정 등이었다. 노조는 애초 요구한 군산공장의 폐쇄 철회에서 한 발짝 물러나 회사의 희망퇴직에 불응한 군산공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문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날 합의 사항은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희망퇴직·전환배치 실시 ▲임금동결·성과급 미지급 ▲복리후생비 절감안 일부 도입 등이다. 지난 2월 13일 지엠 본사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진행된 희망퇴직 후에도 현재 남아있는 근로자 680여명에 대한 추가 점수와 부평·창원공장 전환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남북 정상, 27일 오전 첫 만남

정상회담 외 공식환영식 등도 병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오전 첫 만남을 갖는다. 당일 정상회담 외에 공식환영식과 환영만찬 등도 열린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23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분야 3차 실무회담을 개최한 결과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권 관장은 “남과 북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진행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세 차례의 의전·경호·보도 관련 실무회담을 개최했고 오늘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며 “27일 오전에 양 정상은 역사적 첫 만남 시작으로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환영만찬을 진행하는 등 회담 주요 일정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남북은 3차 실무회담을 통해 양측 정상에 구체적인 동선과 세부 일정까지 최종 확정했다. 다만 일정 발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는 대략적인 일정만 먼저 공개하고 세부일정은 정상회담 보도 지원을 위해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프레젠테이션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는 26일 발표하기로 했다. 또 남북은 정상회담에 참가할 대표단과 수행원 명단을 빠른 시일 안에 최종 확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남측의 경우 문 대통령을 수행할 공식수행원으로 임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6명을 확정해 상했다. 언론보도의 경우 이날 회담을 통해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부터 생중계를 포함한 남측 기자단 취재도 허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차 회담에서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해 남측 기자들이 판문점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 김 위원장의 방남 장면을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뉴시스

매일 INDEX

4면 -미리보는 전주독서대전 광화문서 12면 -전북에서 만나는 가야 이야기

동학농민혁명 124주년 기념 제51회 황도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2018.5.12(토)-13(일) 황도현 전적지 및 정읍시 일원

5월 11일(금)		
시간	행사명	장소
11:00	124주년 동학혁명황도현전승기념식(천도교)	기념탑
5월 12일(토)		
시간	행사명	장소
10:00	무명동학농민군위령제	고부면 신중리
11:00	특별기획 '동학농민혁명으로 꿈꾸는 통일이야기'	행사장
13:30	정읍 무형문화재 발표회1 - 판소리	야외특설무대
14:00	정읍 무형문화재 발표회2 - 정읍농악	야외특설무대
18:30	문화예술공연 '여인 1894'	교육관
	제51회 황도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념식	
	제8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시상식	야외특설무대
	음악과 함께 떠나는 혁명이야기	
5월 13일(일)		
시간	행사명	장소
09:00	제21회 황도현 전국농악경연대회	행사장
10:00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전국역사퀴즈대회	야외특설무대
11:00	구민사 갑오선열 제례 및 위패봉안례	구민사
13:30	제12회 황도현전국청소년토론투대회 결선	교육관
16:00	쌍기발발페스티벌	야외특설무대
	2018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특설무대

5월 11일은 황도현 전승일로 사천행사가 진행됩니다

- 상시프로그램: 신말목장터(체행, 먹거리, 휴식공간), 동학 OX퀴즈
- 전시프로그램: 특별기획 '동학농민혁명으로 꿈꾸는 통일 이야기', 기념관 특별전시 '서양인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